

통권 제85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그림자극을 보여주고 있는 씩씩한 선생님들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26

편집후기/29
아이들 사진/30

2012.2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공동육아를 떠나며

빠져나오기 도저히 힘든 일

해바라기 시훈 승훈 가족

살다보면 뭣 모르고 시작했다가 그 일에 빠져서 도저히 나오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공동육아가 그런 일이었습니다.

10년 전 씩씩한 터전 이전 개원잔치에서 공동육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때 만났던 가족들이, 지금은 조합을 떠난 한세네, 상민이네, 성민이네 등 여러 아마들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육아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신규 조합원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가족은 서먹하면서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시훈이가 4살 봄에 씩씩한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훈이도 씩씩한이 낯설었겠지만, 저희 부모도 적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를 잘했니, 못했니'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차라리 돈 좀 더 내어서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시키자'라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낯에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놀았는지를 알게 되고, 특히 아빠들이 아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동육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육아에 대하여 조금씩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아마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슬픈 일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이 함께 만든 터전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 하기도 했고, 부모들이 만든 텃밭에서 아이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2007년 대책 없이 씩씩한 교육인증평가신청을 했다가 준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인증평가 한 달을 남기고는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역시 2007년 현재 해바라기 터전 주인이 연말까지 비워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들이 해바라기 터전을 구한다고 시지 지역은 물론, 고모역 부근까지 몰려다니는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저 아마는 저렇게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하지 않을까, 심지어 저 아마는 도대체 공동육아를 할 생각은 있는 건가 등 여러 생각을 하기도 했

습니다. 다른 아마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아마들이 터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미산 마을극장 대표이신 유창복 선생님의 강연에서 그 해결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조합생활 동안 어렵פות이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 내에서는 너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보다는 ‘나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스스로 실천할 때, 조합원 사이의 갈등은 해소된다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합생활을 정리할 즈음에야 조합생활의 답을 찾았으니, 나이 들어 철든다는 격일까요. 그래도 이 답은 조합 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등 여러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이 역시 조합생활에서 얻은 지혜이겠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살이던 시훈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승훈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30대 젊음을 자랑하던 저희 부모들도 늙어가는 흰 머리카락을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년 동안 시훈이, 승훈이의 몸과 마음은 몰라볼 정도로 자랐고, 저희 부모들도 아마들 사이에서 함께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 조합을 만들어 생활하다가 후배 조합원에게 물려주고 떠난 선배 조합원들처럼, 저희들과 같이 들어온 조합원들도 지금 터전에 있는 아마들에게 이 조합을 물려주고 떠납니다. 물론 처음 이 조합을 선택했던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때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가 유일한 최선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선배 조합원들이 해 왔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동육아가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처럼 공동육아가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공동육아를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다면, 그냥 폭 담구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얻는 것도 많고,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대충하면 얻는 것도 별로 없고, 후회할 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참으로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했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으로 귀찮게(?) 생각했던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훈이, 승훈이도 터전에 올 기회도 적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저희 가족은 해바라기와 씨씩한에서 함께 한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분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씨, 아이들이 푹뭉뭉한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 그리고 늘 우리 조합을 말없이 지켜 주던 천을산...

시훈이, 승훈이가 별 탈 없이 저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이 조합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아마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훈, 승훈네 가족 일동 

씩씩한 어린이집 2012년 2월 교육계획

정현주(씩씩한, 아침)

- 주제 : 대보름, 졸업
- 세시와 절기:입춘,정월 대보름,우수
- 새노래 : 겨울비 오는 날, 밥상
- 전래놀이,전래동요 : 액막이 타령

겨울비 오는 날

이문구 시, 백창우 곡

여름비는 바람이랑 오는데
겨울비는 바람이 잘 때 온다
겨울비 오는 날은
가지 많은 나무도 잔다
마을 안길도 자고
애들도 없다

액막이 타령

후렴> 어루 액이야 어루 액이야 어기 영차
액이로구나

정월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 사월에 막고
삼월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에 다 막
아낸다

오월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 팔월에 막고
칠월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 귀일에 다 막
아낸다

구월 귀일에 드는 액은 시월 모날에 막고
시월 모날에 드는 액은 동지섯달에 다 막아
낸다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육선
달
내내 돌아가더라도 일년하고도 열두달 반복
은 백성에게
잡귀잡신은 몰알로 만전위전을 비웁니다

밥상

백창우곡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밥상에 오르내리며
나를 키워준 것들

아주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그 소중한 밥상을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추국 호박국
무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 깍두기
가지나물 호박나물 콩나물
고춧잎 무말랭이 짬아찌

■ 교사회 일정

출근

7:30 벚꽃
8:30 체리
8:40 나비
9:00 머루
10:00 보리, 아침

교육 및 회의

2,9(목) - 교사품물 교육
8(수) - 공공교 7세 교사 모임
(장소 - 사무국 교육관:제비꽃방
아마 요청 합니다.)

14(화) - 공공교 지역 대표자 회의
(장소 - 사무국 교육관)

24(금) - 교사 긴 회의

28(월) - 교육평가

토요근무


4 -아침

18 -보리

행사

10(금) - 작은 음악회

17(금) - 졸업 여행

28(화) - 졸업식 

씩씩한 2월 활동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1 전체모듬 대동놀이	2 우리모두 즐거운 날	3 먹거리 교육	4 토요근무 (아침) (입춘)
			자유활동	연령별 활동	박찬종,찬홍 생일	
2주	6 새노래	7 방모듬	8 전체모듬 대동놀이 강정 만들기	9 우리모두 즐거운 날	10 작은 음악회	11
	차모듬	방별활동	박연수 생일	연령별 활동	자유활동	
3주	13 전래놀이	14 방모듬	15 전체모듬 대동놀이 떡꼬치 만들기	16 우리모두 즐거운 날	17 졸업여행	18 토요근무 (보리) 19(우수)
	차모듬	방별활동	자유활동	연령별 활동	자유활동	
4주	20 새노래	21 방모듬	22 전체모듬 대동놀이 김치 고르케 만들기	23 우리모두 즐거운 날	24 안전교육	25
	차모듬	방별활동	자유활동	연령별활동	자유활동	
5주	27 전래놀이	28 방모듬	<신규 등원> 1일 - 이서영(5,여) 6일 - 이루다(5,여) 8일 - 강유채(4,여) 20일 - 홍소정(7,여) 27일 - 조승주(5,여)			
	이시훈 생일	방별활동				

꽃마리방

1월 교육평가 및 2월 교육계획

이희연(씩씩한, 머루)

♣ **방구성원** : 박성희, 박채희, 송하선, 신차람, 안승우, 오은준, 이상화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도 스무 살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의 나이가 되고서는 나이를 헤아리는 게 귀찮고 때로 두렵게도 느껴집니다. 가끔 아이들이 묻습니다. “머루, 몇 살이야?”, “서른 한 살(2011년).”, “에~, 우리 엄마보다 작다. 우리 엄마는 삼십 일곱 살인데.” “우리 엄마는 사십 한 살이다, 뭐” 아이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이가 적다고 얘기도 해 주고, 새삼 많지 않은 나이더라고 저를 일깨워 주기도 해서지요.

2011년 12월 30일, 채희네 집에서 꽃마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방 초대를 받은 적이 없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채희 오빠인 찬희가 꽃마리 동생들을 데리러 고맙게도 와 주었어요. 채희 집에 도착해서는 좀 놀다가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쳐 보기도 하고, 반죽을 밀대로 밀어 모양을 찍어 보기도 했습니다. 쿠키가 익자, 아이들이 말릴 새도 없이 신나게 먹어서 점심을 잘 먹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쿠키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후 간식 때 터전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게 쿠키를 넉넉히 구워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12년 1월 8일, 일주일 겨울방학을 마치

고 만났습니다. 꽃마리방에 혜승이 동생 안승우가 오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하고, 조그만 몸으로 잘 돌아다닙니다. 할머니께서 나들이도 함께 해 주시고, 점심식사 때 지켜보고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첫 날인데도 스스로 없이 잘 먹고, 잘 노는 걸 보니 앞으로 터전 생활도 큰탈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도 생깁니다.

1월 16일, 등원한 아이들 수가 적어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하고, 아픈 친구들은 터전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희영이, 도연이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오늘따라 도연이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빠와 헤어지는 것이 좀 힘들었나 봅니다. 터전에 남기로 한 체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야기도 몇 번 했습니다. ‘잉잉-’ 떼를 쓰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아, 울지 말고 말로 해. 울지 않고 말로 할 때 도연이 말 들어 줄게.’ 말을 해도 소리 내어 계속 울었습니다. 결국 보리, 벚꽃이 먼저 출발하시고 도연이랑 저만 남았습니다. 도연이가 터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저랑 마주 서서 대치하고 있었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한 10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조용히 다시 물어보니, 나들이를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용을 써서 한참을 울고 나니 저도 힘들고, 또 그런 아이를 보는 것도 안쓰러워 울면서 떼써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쉬자고 말해 버렸습니다. 대 원칙(아픈 아이만 쉰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예외를 둔 것입니다. 나들이에 좀 늦게 참여하게 된 윤서 어머니께서 도연이를 설득해 주셨지요. 양보와 타협을 거친 후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한바탕 힘겨루기를 하고 나면 원칙과 상관없이

말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의 판단이 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1월 17일, 오전 시간에 만두 만들기를 했습니다. 채희는 집에서 어머니 하시는 걸 봤는지, 칼질을 곧잘 했습니다. 은준이는 채희 옆에서 마음 맞춰 같이 했습니다. 똑심 있게 묵묵히 잘 따라 해서 둘이 눈맞춤도 하고 종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하선이랑 승우가 한 도마를 썼습니다. 하선이 빵칼로 장난을 쳤는데, 승우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하선을 혼냈습니다. 차람이는 빵칼로 써니 잘 안 썰어지고 재미가 없었는지 당면 썰다 ‘그만 하고 싶어.’ 부추 썰다 ‘그만 하고 싶어.’ 두부 썰다 ‘그만 하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더 안 만들 줄 알았는데 만두피에 속을 넣고 만들 때는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오전에 만든 만두를 찌서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어 느끼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이들이 참 잘 먹었습니다.

1월 18일, 오늘 드디어 꽃마리방 7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상화도 오랜만에 등원해서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꽃을 쑥 내밀기에 제 뉘인 줄 알았습니다. 왕 착각이었지요. 채희 것이었습니다. 며칠 아프고 와서도 상화 표정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나들이로 고산 중학교 뒷산으로 올라가 연못으로 내려 오는 길을 다녀왔습니다. 맨 먼저 출발했는데 중반부터 채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일곱, 여덟 살 되는 형님들 사이에서 다섯 살은 채희 혼자였습니다. 채희는 체력이 참 좋습니다.

방모임 때 얘기한 공동요를 하선이 어머니께서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모여서 자면 장난치고 늦게 잘까 걱정했는데 잠드는 시간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공동요를 까니 훨씬 손이 덜 갑니다. 고맙습니다.

1월 20일, 방모임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상화가 거미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하선이, 은준이, 승우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마다 거미와 관련된 경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상화는 “하늘에 커다란 독수리(상화 아버지 별칭)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거든. 그래서 아빠가 잡았어. 그런데 거미가 나타났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보리가 옥수수를 까놓으신 게 있어 아이들과 연못에 가서 새 모이 주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하선이, 승우, 상화, 은준이 이렇게 남자 아이들 넷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으로 달려 가더니, 조그만 개울을 풀쩍 뛰어 내려서 바위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확실히 아이들 움직임이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특별히 손을 잡아 주지 않아도 잘하는 일들도 많아졌고요. 몇 달 만에 아이들이 많이 큰 느낌입니다.

평소에 다니지 않던 반대편 산에 올라가서 옥수수를 놓고 왔습니다. 나무 껍질 사이에 박아 놓기도 하고, 새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옥수수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도중에 연못으로 나들이를 나온 몬테소리 어린이집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마주친 어린이집 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되게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가 봐요. 아이들 잃어버리고 사고 날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네, 저도 걱정이 돼요, 하하” 바로 옆집에 있으면서도 몬테소리 교사와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은근히 관심을 받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7일, 양지꽃이 꿈공작소로 나들이를 가서, 남은 터전 아이들이 모두 함께 매호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길을 가다 어제 불렀던 ‘개고리타령’을 부르면서 가

자고 얘기했습니다. 부르려고 하는데 윤서가 '2절 가르쳐 줘.' 얘기를 했고, '윤서야,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했잖아.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 줘.'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다 저와 손잡고 걷고 있던 상화가 윤서 발을 밟았고 (뒤꿈치를 살짝), '상화가 내 발을 일부러 밟았어. 나도 그럴 거야.'하며 윤서가 상화 발을 밟았습니다. '윤서야! 상화 발 일부러 밟았으니 사과해라.' '내가 왜? 상화가 내 발 밟았으니 상화가 사과해라.'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잖아.' '일부러 밟았다.' '윤서가 노래 이야기하면서 머루랑 손잡고 가던 상화 앞길을 계속 막으니 뒤에서 따라 오다가 그렇게 되었잖아.' '일부러 한 게 아니라도 발을 밟았으니까 사과해야 된다.' 상화에게 '상화야, 걷다가 윤서 형아 발을 밟았으니까 형아한테 사과하자.'라고 했고 상화는 '미안해, 진심으로.'라고 사과했습니다. '윤서도 상화 앞길을 걷는 것 방해했으니 사과해라.' '진심으로 미안해.' '상화가 일부러 밟은 것 아닌데 상화 신발 밟았으니 사과해라.' '내가 왜?' '앞에 끼는 길 가는 것 방해했으니 사과하고, 뒤에 끼는 일부러 신발 밟았으니 사과해야지.'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해야지.' '미안해.' '진심으로라고 말하고.' '내가 왜 여러 번 사과해야 돼?'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한번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니깐 여러 번 하잖아.' '진심으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다 길어져서 아이들과 체리, 벚꽃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꼬리로 싸움하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나서는 '이게 잘 한 건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명쾌하지 않은 것은 좋은 해결법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런 상황일 때 고민이 됩니다. 얘기할 때 차분해지지 않는 저의 마음이 고민이고, 아이에게도 명쾌한 상황해결법이 아닌

것 같아 고민입니다.

♣ 연령별 모임

(5세 고양지방 - 김윤아, 김희영, 성도연, 이윤서, 장문경, 최영운.)

1월12일, 오전 열기 모임에 작년 주은 돈 육천 원에 호박 판 돈 육천 원을 모아, 합이 만 이천 원의 쓰임에 대해 회의했습니다. 회의로 얘기할 것이 많이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아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맛있는 것 사 먹으려고 육천 원, 다른 사람을 돕는데 육천 원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들이를 하기에는 시간이 짧아 안에서 놀거나, 바깥 모래 놀이터에서 놀 사람을 나누어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밖에는 도연, 희영, 문경, 윤아 이렇게 넷이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도연이와 희영이는 커피 만들기, 윤아와 문경이는 케이크 만들기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기 바로 전까지 잘 놀았습니다.

1월 19일, 아침 10시에 출근하니 2층에서 아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잡기 놀이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어떻게 비오는 아침 이리 힘이 넘칠 수 있는가 싶었지요. 비가 와서 8세 졸업 여행이 늦춰져 열기 모듬을 늦게 시작했더니 그 아침, 짙는 때에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요를 하나 새로 배웠습니다. 부드러운 노래와 힘 있는 노래는 부르는 방법이 다른데 민요를 부르면서는 분명하고 또 박또박하게 말하면서 강하게 부르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모두 잘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레고방과 함께 뽕튀기를 하러 푸른평화에 갔습니다. 비가 조금 내려 우산을 하나씩 들고 갔습니다. 혜승, 희영, 윤아 셋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느라 늦게 걸어서 저에게 재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곁에 있던 규언이가 '여자들은 왜 저렇게 늦게 가?'라고 물었지요. '이야기하고 수다 떠

는 게 좋아서 그런가 봐.’ 푸른평화 앞 다리를 건널 때는 넓적한 바위를 보고 ‘나 저 위에 집 지을 거야.’ ‘뭘로?’ ‘벽돌로. 벽돌은 안 미끄러지거든. 그래서 벽돌로 지어서 살 거야.’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규언이 참 재밌습니다.

1월 26일, 오늘도 지난 주에 못했던 밥상을 튀기기 위해 레고방과 함께 푸른평화에 갔습니다. 갔는데 빵튀기 아저씨가 오늘도 나오시지 않아 그냥 돌아올까 하다가, 그래도 나온 걸음인데 싶어 다리 밑에서 좀 놀다 가기로 했습니다. 놀다가 규언이가 물어 빠져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일찍 오게 된 아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영윤이 옆에 윤서가 앉았는데 둘이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영윤이가 자주 앉는 자리 옆에 윤서가 앉았는데 서로 밀치기를 하게 된 것이지요. 서로 밀다가 윤서가 영윤이 식판을 치게 되었고(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판에 국이 좀 쏟아졌습니다. 윤서가 사과를 했지만 영윤이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서와 식판을 바꾸겠다(그건 안 된다), 머루가 결정해라(무엇을 결정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것을 말해 봐) 이렇게 이야기하다 밥을 안 먹겠다(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했습니다. 아침이 같은 식탁에 앉으셨고 그럼 다른 데 있다가 기분이 좀 나아지면 와서 먹어라 하셨지요. 5분쯤 뒤 돌아와서 기분이 좀 나아졌다 봅니다. 영윤이 뒤편의 두부를 지키고 있다가 주었더니 웬지 모를 서운한 감정이 가셨나 봅니다. 밥도 잘 먹고 양치도 잘 하고 낮잠도 잘 잤습니다. 이 날은 고양이들이 그래도 잘 잔 날입니다. 이제 여섯 살 형님이 될 텐데, 고양이들이 낮잠을 좀 잘 자게 되면 좋겠습니다. 미리 기도해 둡니다.

올해 꽃마리들이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곧 새로운 다섯 살 친구들도 생기고, 통합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잘 자라길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ㅁ

별꽃방

1월 교육평가 및 2월 교육계획

조윤정(씩씩한, 체리)

★ 방구성원

5세- 최영윤, 성도연, 김희영

6세- 박찬종, 박연수, 박주하, 김민소

7세- 최지웅, 신다안

아마에게는 한 달 같았던 방학이 교사에게는 하루 같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해 터전 살이가 시작 되었습니다. 한 달이 다되어가는데도 방 날적이를 적을 때 2012년이 익숙하지 않아 2011년이라 적고서 고쳐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ㅎㅎ

학교가 아직 방학이어서인지 아침에 등원하는 아이들 모습들이 여유롭고 평화로와 보였고 여행을 가거나, 아프거나, 친척집 방문 등의 이유로 등원 아동수가 줄어서 하루 흐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둠과 나들이 등을 모두 함께 지냈던 한 달이었습니다.(우즐날은 그대로 진행)

지난 한 해를 숨 가쁘게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놓치고 빠뜨린 것도 있었지만 몸소 느끼고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통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공동육아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가

치를 알아가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필요성을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공동육아에 와서 이해할 수 없었던 점들이 통합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풀리기 시작했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조심스럽게 실천을 하면서 내 안에 힘든 집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유아기적 삶에서는 모든 것이 미분화된 상태에서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통합적인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통합적인 생활로 가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어른들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방과 방이 통합되고 안과 밖이 통합되고 아이와 아이가 통합되고 아이와 교사가 통합되고 교사와 교사가 통합되고 교사와 아가가 통합되었을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고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닐 테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생각들을 모으려 노력한다면 공동육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에서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1년 겨울교사
대회를 다녀오고서 교사회의를 마치고....

★ 아이들 이야기

간식을 싸오면 여럿이 나눠 먹고 간혹 도시락을 싸올 때는 아이들이 나누어 먹자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간식과 도시락의 개념을 이해하는 듯(?)^^

방학이어서 일찍 오는 도연이의 등원시간이 늦어졌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낮잠이 힘들지 않을까 살짝 고민 되었으나

여전히 깊은 낮잠을 자는 모습이다. 곤충들이 나오는 이야기책이나 자연 관찰 책을 좋아하고 요즘은 틈만 나면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만들기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여전히 희영이와 사이가 좋지만 또래들과 놀이와 역할극에 자주 참여한다.

등원하는 모습을 보면 영윤이가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과 헤어짐이 자연스럽게 씩씩하고 즐겁게 들어와서 신발정리 걸옷 정리도 알아서 잘한다. 또래들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형들과 몸 놀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로빈훅 이야기책을 거의 외우고 있는데도 자주 읽어 달라고 한다. 여전히 야채 먹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잔반 남기지 않기를 하면서부터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한다.

낮잠 자기 전에 어머님이나 할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을 인지하고부터 희영이의 터전 생활이 다시 예전의 안정적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나들이를 즐거워하고 나들이오고 가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잘 한다. 식사 때 밥을 입에 한참 물고 있거나 자주 물을 먹거나 식사시간이 다소 느려지고 있으나 다시 식습관을 잡아 가고 있다. 놀이에 참여하기보다 탐색하거나 관찰하는 모습이 보인다. 요리활동에 잘 참여하고 좋아한다.

요리활동으로 만두 만들기를 할 때 꽃마리방 양이 많다고 준 재료들을 주하가 끝까지 모두 다지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했다. 주어진 일에 마무리가 잘되고 완성하기를 좋아한다. 집에서 혼자 터전에 오고 갈 수 있다고 자랑하기도 ^^ 또래들과 잘 어울리며 가끔 놀이를 주도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골고루 음식을 잘 먹고 식사량도 늘었다.

1월 한 달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연수 - 얼굴 보자마자 썩긋 웃으며 “나 피곤해서

오늘 낮잠 잘 거야” 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 들을 잘 이야기하는 연수의 여행 답이 궁금하다

방학을 지내고 보니 키가 쑥쑥 큰 민소가 나들이에서 쉬이 지치는 모습이 보인다. 체력이 딸리는지 최근에 한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인지 식사량도 두 배는 더 늘었고 식사시간도 조금 빨라지고 있다.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잘하고 요리활동에 적극적이고 만들기에 흥미를 보인다.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도 많은 찬종이는 또래와 남자 동생들이 좋아한다.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그런 것과 아닌 것에 대해 나름 이유와 설명이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시작 한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찬종이가 잘 아니까” 하는 대답이 많다. 또래아이들이 놀이의 규칙과 방법을 찬종이에게 묻거나 따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듯하다.

설날 세뱃돈을 받아서 저네 장난감을 사고 싶었던 다안이는 학교 가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동생들도 부쩍 더 잘 돌보고 터전의 만언니로서의 자리매김을 한다. 새 모이 주기를 좋아하고 새들이 먹으라고 나뭇가지에 꽂아 놓은 사과를 새가 와서 먹는 모습을 보고 알려주기도 한다. 다음에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종이칼을 등 뒤에 꽂고서 아이들과 남자 동생들과 역할놀이를 즐겨한다. 지웅이는 블록으로 만들기를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준다. 남자 동생들은 잘 따르지만 여자 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때도 있다. (여자 동생들을 간혹 놀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에너지를 맘껏 발산하고 지낸 지웅이가 학교생활도 즐겁게 하리라 기대한다.

★ 또래모임

1월12일- 우즐날이긴 하지만 전체 모듬을 진행하였다. 작년 여름 즈음에 나들이에서 주운 돈(6000원)과-(경찰서에 맡겼지만 주인을 찾아 줄 수 없다며 다시 터전으로 되돌아옴) 부조, 들어온 애호박 팔기를 해서 번 돈(6000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 시간 넘게 모듬시간이 진행되었지만 나름 집중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많은 이야기들과 의견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맛있는 것을 사먹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그래서 6000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7세들이 넣기로 하고 6000원은 모두 화요시장에 가는 날 맛난걸 사먹기로 했다.^ ^

오후에는 지웅이에게 줄 카드를 만들고 각자 원하는 모양의 나무피리를 만들어 보았다.

1월19일- 7세 졸업여행이 예정 되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연기 되었다. 오전에는 하민어머님과 지웅어머님께서 차량아마를 해주셔서 어린이회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수아어머님의 차량아마로 ‘코알라키드 영웅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관람하고 돌아왔다.

※ 2월 중순경(16일 or 17일) 졸업여행 다녀올 예정입니다. 

양지꽃방

1월 교육평가 및 2월 교육계획

백은주(씩씩한, 보리)

터전방학으로 시작한 1월은, 그동안 잦아 들었던 감기가 다시 성하여 약을 먹는 아이가 많았고 또 부모나 형제자매의 방학까지 겹쳐 집에서 쉬는 아이도 많았다. 설도 끼어 있어 상대적으로 터전에 오는 날이 적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일은 어느 달보다 더 많았다.

무쇠로 만든 진짜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가마솥 밥도 해먹고 ㅍ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오도독오도독 맛있게도 먹고.... 도시에서 불기운을 접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낯가죽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신기해하고 불장난을 치고 싶어한다. 올해 여덟살이 된 장민과 수아는 아궁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불을 다루는 솜씨도 있어 역시 나이값을 하는구나 싶었다. 천을 산 긴나들이 길에선 산에 베어져있는 굵은 통나무를 뿔감 해가자며 영차영차 끌고 오기도 하였다. 현민은 연못가에서 놀다 한번 빠진 뒤로는 꿈속에 연못이 나올까봐 무서움을 많이 탄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봄여름 가을겨울 계속 이어질 연못가나들이에서 승화되길 바란다. 날씨가 예사롭지 않은 날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는 바깥나들이, 어느 날은 비료포대를 준비하고 썰매산으로 가서 가파른 잔디위를 신나게 온몸으로 타고 내려왔는데, 윤서는 아예 포대안으로 몸을 반쯤 밀어 넣고 타 그 모습이 꼭 꿈틀대는 귀여운 애벌레처럼 귀여워 한참을 웃으며 지켜보았다. 아직은 대구에 큰 눈이 내리질 않고 있는데 언제라도 눈이 내려 쌓

이면 신나게 눈썰매를 타러 갈 것이다.

겨울에 눈이 오면 새가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여, 땅콩 해바리기씨앗 호두 옥수수 등의 새모이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빈 우유통을 이용하여 새모이통을 만들어 터전 근처에 매달아놓았더니 까치 참새 이름모를 산새들이 날아와 먹었다. 나뭇가지에 꽂아놓은 사과를 쪼아먹는 새들 근처에 현민이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새가 금방 날아가지 않아 역시 새들도 우리 아이들을 알아보는지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겨우내내 새모이를 주는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새해맞이 만두 만들기를 하는 날에는 아이들의 야무진 솜씨를 한번 더 볼 수 있었던 날이었다. 주방선생님이 미리 마련해두신 만두 속 재료들을 잘게 썰어 물기를 꼭 짰 뒤 계란 노른자를 넣고 잘 섞은 다음 만두피에 한 손가락씩 떠넣고 계란 흰자를 가장 자리에 발라 꼭꼭 눌러 만들다가, 유민이 포크로 할 수 있다며 만두피를 꼭꼭 눌러 색다른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유민은 작년에도 포크로 한 적이 있다하여 역시 경험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아이들이 설을 앞두고 새배를 하였는데, 먼저 절하는 법을 배우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맞절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숙연함마저 느껴져 이런 감동을 안겨주는 아이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다. 이어진 작은 음악회는 터전의 선생님들이 문화나들이의 의미를 담아 준비하였고, 오카리나 피리 연주를 선보였다. 글썽 아이들이 좋아하였을라나 축스럽기도 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였는데, 터전에서 가장 친근하게 지내는 선생님

들의 연주이니 아이들이 더 편하게 들어주고 즐겨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겨울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콩나물 키우기”이다. 콩을 하루 정도 물에 넣어 불린 뒤, 콩나물시루에 넣고 검은천을 덮어두었다.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자주 주고 있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을 줘야 한다. 왜인가 물어보니 기름기가 들어가면 콩이 썩어버린다고 하여 조금 긴장되기도 한다. 아무튼 겨울에는 터전 안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콩나물 키우기가 또 하나의 소일거리가 될 것 같다. 아이들에겐 시간이 지나 쑥쑥 커가는 콩나물이 마술처럼 보일라나...

추운 날씨, 나들이 만큼이나 힘든 것이 낮잠 자는 일이다. 두꺼운 이불을 깔고 덮고, 민소는 소금기와 함께 잠들고, 환주는 춤다 하여 보리가 안고 재우기도 하고, 윤아는 자지않고 몸쉬기하다 일어나서 놀고, 규언은 이제 여섯 살이니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스스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면 들어주기도 하여 고맙고....어느 날은 보리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동화책을 못 읽어주겠다고 하였더니 아이들이 오빈이가 읽으면 된다고 아우성을 쳐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아이들 틈에 같이 누워 오빈의 책읽는 소리를 들으니, 아! 이래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떠들던 것도 멈추고 잘 듣는구나! 그 느낌을 알게 되었을 만큼 너무너무 참 좋았다.

청도 꿈꾸는 공작소로의 나들이는 맛난 도시락 싸서 하민엄마와 민소아빠의 차를 타고 다녀왔다. 톱과 망치로 푹푹딱딱 하나씩 만들었는데 나무자동차의 나무바퀴가 진짜로 굴러갔다 와우! 예쁜 토끼인형에 옷도 입히고 나무칼 나무총 나무상자까지... 목

공작업이 한번의 나들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쉬워 어떻게 터전에서 자주 해볼 수 없을까 고민이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커다란 황소는 그 덩치만으로도 겁이 났는데, 순간 소가 떼어져있는 논바닥에 민소가 성큼 들어가려해서 깜짝 놀라 얼른 붙들었다. 어릴 적 소등에 올라타 봤다는 민소아빠와 함께 논바닥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어떠했을까?

끝으로 날적이 아마이야기를 옮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청소가 날적을 읽게 하리라 

제비꽃방

1월 교육평가 및 누리과정 연수
마주이야기

황태순(씩씩한, 벚꽃)

◆ 방구성원

5세 : 이윤서, 김지호, 장문경

6세 : 김현동, 이시훈, 박찬홍, 안혜승

7세 : 최장민, 정수아

◆ 생활목표

기본생활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자.

- 청결(이 닦기, 손 씻기, 세수하기)
- 정리정돈(내 바구니정리, 스스로 옷 입고 벗기, 놀고 난 자리 치우기)
- 식습관(음식의 소중함 알기, 반찬 골고루

먹기)

- 예절(반갑게 인사하기)
- 안전한 터전 생활(계단 조심, 실내에서 걸어 다니기, 교구 안전하게 사용하기)
- 친구관계(우리 방 친구들 뿐 아니라 터전형, 아우와 모두 사이좋게 지내기)
- 교사와 아이(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한다.)

◆ 2012년을 맞이하였다.

작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온전히 공동육아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 정말이지 생존기였던 것 같다. - 아이들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울고, 웃고, 고민했던 시간을 보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을 대체로 잘 보내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제비꽃, 레고방 등 인복이 유달리 많았던^^작년, 올해도 “방학! 그게 뭐야?” 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00프로를 지향하는 제비꽃방과 레고방을 보며 ‘나의 인복은 타고난 것인가...노후에는 장사를 해야 겠다’하는 고민도 살짝 들게 한다.

일주일을 방학을 보내고 등원이 대체로 늦는 느슨함 속에서 아이들은 얼음을 깨려 연못가로(몇 명은 심청의 후손임을 증명하였다.) 가고 썰매산으로 썰매를 타러 가고 비료포대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신나게 놀았다. 또 아궁이에 밥 짓기도 여러 번. 밥을 편 후 나오는 말랑말랑한 누룽지도 아이들에겐 큰 인기다. 각 계절마다 할 수 있는 나들이 놀이와 먹거리들이 다양하니 아이 못지않게 나또한 재미있었다. 2012년도 재밌게 놀아야지.

◆ 누리과정 연수 이야기

이틀 동안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900명 가까이 되는 교사들과 함께 3월에 시행해야 할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점심시간 한 시간, 100분씩의 강의(자료집과 수정할 수 없는 이미 만들어진 PPT자료를 읽는 수준)에 10분 휴식... 여간 불편한 자리가 아니었던지 과정을 마치고 심하게 몸살을 앓았다.

5세 누리과정은 올해 급하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전국의 모든 만 5세(7세) 아동의 보육료를 정부가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대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가 정한 <5세 누리과정>에 따라 하루 3시간에서 5시간씩 교육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정한 교육방식을 따르라는 말이다. 정부가 정한 이 과정은 내용과 활동면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요구한다. 그래서 교안은 만5세 아이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정하고 만들어졌다. 만 5세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받으려면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7살에도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일상인데...

처음 개론에서 누리과정이 만들어진 배경을 듣는데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 안의 3수준과 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의 2수준을 모아 발췌하고 반복되는 부분을 없앴다고 했다. 이 부분도 이상한 부분이 많고(그럼 유치원의 6세과정이 되는 2수준이 누리과정보다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인지?) 각각의 영역을 분절하듯 나누어 놓고 설명하기를 반복하는 강사들의 똑같은 모습에 이것이 현주소구나 라는 씩씩함과 거리감과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공동육아 안에서도 아이들과의 일상을 풀어가가는 방향은 다양하다. 이 외에도 생태, 발도르프 등 각 원 마다 고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다. 누리과정에 나온 교안을 조금 변경해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분이 연수 후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될 경우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을 해 주셨다고 한다. 다른 지역이야기라 확인한 바가 없어 이번 연수 때 발표하신 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과정이 3월에 시행을 해야 하니 우선 시급한 것은 자료집을 설명하고 30시간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라 하고 매달 교육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지, 교육계획안의 다른 부분을 일일이 설명해야하는지, 감사가 나와서 확인을 하는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답변들과 줄속으로 행해지는 명쾌한 이야기와 아닌 것에 내가 휩쓸리거나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리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며 공동육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일상이 누리과정 안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변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쫄 일은 없겠다.

◆ 마주이야기

청구놀이터에서 주운 6,000원과 애호박 팔고 번 6,000원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처음에는 떡 사먹자, 장난감 사자, 찹쌀 도너츠 먹자, 떡볶이 먹자, 옛 사 먹자, 어묵 먹자, 콩콩랜드 가자, 강아지 사자...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하니

장민: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를 도와줬음 좋겠어. 비행기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돈 줘서 아저씨가 아프리카 도착하면 갖다 주면 되잖아.

지호: 다른 사람 어려울 때 주자.

현동: 돈 잃어버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돈 주자.

윤서: 돌아가신 분 병원 가서 네모난 상자에 돈 주자.

만두 빚기에 앞서 만두를 먹고 나이 한 살씩 더 먹었다는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를 듣고..

동물들은 만두 먹어야 한 살 먹었지만 우리는 떡국 먹어야 한 살 먹는데이/떡국은 어제 먹었잖아/ 왜 설도 아닌데 먹노?! 자들은 (동물들) 설날 전에 만두 만드는데 우리는 와 오늘 만드노?! 설날에는 강정만들기한다!

몸쉬기 시간. 아이들 재워 놓고 1층에 내려왔더니 수아 다가와서

수아 : 벚꽃,보톡스가 뭐야?

벚꽃 : 어? 그런것도 아냐?

수아 : 엄마가 오빠 이마가 들어가서 보톡스 맞아야 되겠네. 그런데 그것도 주사야?

벚꽃 : 벚꽃도 티비로만 봤는데 주름살 있거나 쑥 들어간데 맞으면 수아 이마처럼 톱 튀어 나오고 주름살도 없어지는 주사라고 들었어.

수아 : (이마를 쓰윽 만지며)히히.

설을 보내고 와서 모두 설을 어떻게 보냈냐고 하니 세뱃돈 받은 이야기로 열을 올린다.

윤서 : 나는 10개 받았다. 엄마, 아빠보다

돈 많데이.

문경 : 봉투에 할아버지가 항금(가득) 넣어 줬다. 작은 삼촌, 삼촌도 돈 줬다. 어쩔래?

시훈 : 나는 이십칠만원 받았다.(모두 우와~~를 했지요)

그 날 아마이야기에 남겨진 글 : 시훈이의 빵이 갈수록 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궁금해합니다.(시훈부)

—, —(아이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ㅅ**

주방

1월 교육평가 및 2월 교육계획

이정윤(씩씩한, 태양)

유난히 밝아 보였던 첫 인상!

아침, 보리, 체리, 벚꽃, 머루, 나비 선생님께서 붙여진 애칭이다.

한 동안 어린 유아들은 접해 보진 않았지만 구김 없이 다가오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반겨 주었다.

익숙했던 지난 날들이.....

아이들을 키울 땐 몰랐었던 재미가 하나 둘 씩 생겨 나면서 나에게도 애칭이 붙여졌다 “태양”

어색함도 잠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문을 열면서 ‘태양 오늘 간식이 뭐야?’ 어쩔 말들을 야무지게 하는 지..... 하루, 이틀, 밥을 먹는 표정과 가리지 않고 먹는 식성에 또 한 번 놀랐다.

밥 한톨도 안남기고 잘 먹는 아이들의 입놀림이 편식하는 어른들보다 더 낫다.

식자재를 보면서 생협에서 물품 구입 하

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집 이라 여겼다.

◆ 요리활동1 (2012. 1. 13. 금)

오늘은 썩썩한 교사들 연수로 아마들께서 그 자리를 채워 주셨다.

전날 가래떡(현미)을 뽑아서 저녁간식으로 조청에 찍어서 먹었다. 7세들은 체리샘의 권유로 어린이집에서 제일 우두머리라 가래떡을 길게 잘라서 조청에 찍어 먹게 했다.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조구마하게 잘라 조청에 찍어 먹었다.

아마들만 계시는 어린이집은 아이들도 귀신 같다. 평소와는 다른 투정에 아마들이 많이 힘이 든다.

가래떡은 꼬들꼬들 썰기에 딱 적당 했다. 모듬별로 빵자르는 플라스틱 칼과 도마로 예쁜 떡국떡을 썰었다. 모양은 크고 작고 다양했다. 칼이 잘 들지 않는다고 투정은 하지만..... 그래도 요리 활동 내내 진지한 모습이 었다.

오후에 낮잠 자는 시간! 7세들은 잠을 자지 않고 놀기를 원한다.

아마 한 분께서 장작을 피우시더니 멋진 놀이가 시작 되었다. 오전에 썰어둔 떡국떡을 대나무 꼬지에 끼워서 살짝 구워서 먹으니 그 또한 멋진 간식이 되었다.

장작불이 너무 좋아서 고구마까지 구웠다.

◆ 요리 활동2 (2012. 1. 17. 화)

무덤별로 큰 쟁반, 계란 흰자, 포크, 만두에 들어갈 소를 골고루 분배한다.

조그마한 손에 만두피가 너무 큰 걸까? 아이들은 만두피에 소를 조금씩만 넣었다. 그래도 제법 모양이 만들어 졌다. 나중에는 남은 만두피에 김치만 넣은 만두를 만들었다. 오후 간식은 “찐만두” 오전에 만든 만두

를 찌서 간장에 찍어서 먹었더니 별미 중에 별미. 맛은 왜 그리도 좋은 지 실컷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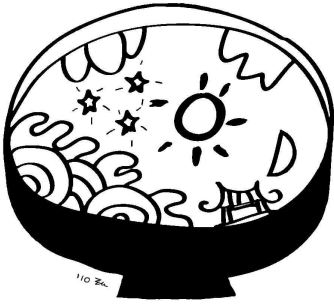
아침의 장구치는 소리에, 별꽃방, 양지꽃방, 제비꽃방, 꽃마리방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며, 나들이 준비에 부산 하지만 체계가 집혀진 아이들의 움직임. 밥을 다 먹는 친구 중 누가 먼저 밥 주걱을 차지 할까 궁금한 식사 시간.

하나하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선생님!

구김 없고 해 맑은 아이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는 씩씩한 어린이집에서의 짧은 시간이 태양에게 주어져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한 시간! 소중한 간직 하겠습니다.

^^ 



씩씩한 맛있는 2월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오전간식		야채주먹밥	소고기야채죽	누룽지탕	버섯야채죽	
점심		야채비빔밥 고추장고기볶음 맑은된장국	들깨무국 고등어구이 배추겉절이	미역국 돈불고기 무생채	야채볶음밥 계란국	
오후간식		찐만두	토스트, 매실	박찬종·찬홍생일		
6(정월대보름)		7	8	9	10	
오전간식	잣죽	김주먹밥	고구마스프	물만두국	에그스크램블	
점심	오곡밥, 버섯두부국 콩나물무침 고사리나물	잡채밥 맑은무국	미역국 닭조림 시금치무침	시래기국 새송이버섯볶음 메추리알조림	김치찌개 연근조림 계란말이	
오후간식	들깨수제비	파래전	박연수생일	고구마, 유자차	소보루빵, 우유	
13		14	15	16	17	
오전간식	호박죽	멸치주먹밥	옥수수스프	묵채국	떡국	누룽지탕
점심	냉이된장국 검정콩조림 시금치무침	홍합국 우엉조림 통된장무침	콩나물밥 두부국	시금치된장국 미역줄기볶음 오징어두루치기	순두부찌개 땅콩조림 봄동나물	카레밥 미소된장
오후간식	김치전, 매실차	요플레	,떡꼬지, 요리활동	시금치새우오믈렛	콩나물전	
20		21	22	23	24	
오전간식	참깨죽	미역귀주먹밥	콩나물갱시기	새알미역국	감자스프	
점심	황태국 시금치나물 감자볶음	들깨무국 꼬막찜 미역무침	불고기밥 맑은된장국	콩나물국 무파래무침 두부양념조림	미역국 돈까스 콩나물무침	
오후간식	모닝빵, 두유	감자구이	김치고로케요리활동	잔치국수	이시훈생일	
27		28	29			
오전간식	단호박죽	유부초밥	조랭이떡국			
점심	맑은된장국 고등어무조림 봄동나물	복어국 연근조림 브로콜리, 초고추장	야채햄볶음밥 맑은순두부찌개			
오후간식	어묵탕	찐고구마	칼국수			

해바라기 방과후 1월 교육평가 및 2월 교육계획

김병현, 류선희(해바라기, 토토로, 포도)

♥ 해바라기 1월 교육평가

1. 전체평가

1월에 방학과 설이 끼여 있어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많이 지내지는 못했다. 아이들도 개인 사정으로 터전을 들락날락하면서 터전이 상대적으로 한산한 느낌도 있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나서는 아이들이 대부분 등원했다. 그리고 1학년도 터전에 와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터전을 차지하고 있다. 덩치 작은 아이들이 많아져서 터전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었다. 오전엔 아이들이 거의 8명 미만으로 지내다가 점심시간 즈음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온다. 상대적으로 오전에 놀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심심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 중심으로 놀이가 새롭게 전개된다. 서서히 큰형 큰언니 역할을 하고 있다.

방과후의 적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포도의 절대적 도움을 받는다. 포도 근처에서 마음을 채우며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1학년에게는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다.

2. 대구스타디움 긴 나들이

수요일 긴 나들이 날이다. 전날에도 천을 산을 긴 길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대구스타디움을 걸어서 가기로 했다. 여러 아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또 가보자는 아이들도 있었다.

터전 출발 > 고산초 > 노변동 매표전 다리 > 지인 하우스 > 대신택배 > 교회 > 굴다리 > 요금계산소 굴다리 > 포도밭 사이길 > 굴다리 > 콩지마을 > 홈플러스 앞 > 대구스타디움 분수 광장

총 걸어난 시간 45분. 아이들 걸음이라 빠르진 않았지만 대체로 잘 걸어 다녔다. 시골길을 걷는 기분이 좋다. 아이들도 처음엔 불만이 있었지만 시골길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서 삼삼오오 모여서 열심히 걸었다. 포도는 이길 자체가 처음이어서 나름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는 길이라고 하셨다. 그래도 빨리 걷는 아이들 느린 아이들의 간격차이가 점점 벌어졌다. 그럴 때 마다 가다 쉬다를 반복했다. 그냥 안 쉬고 열심히 걸으면 3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이다. 포도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며 소 거름 냄새를 맡아가며 웃고 떠들었다. 우리 밖에 없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좋았다. 나무로 된 계단 가운데 있는 경사로를 미끄럼틀 삼아 연신 아이들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재미있는 장소를 발견하면 꼭 시험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이다. 대구 스타디움은 약간은 추운 날씨에 구름도 있어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아이들은 남녀를 나누어 광장 전체를 돌아다녔다. 대구스타디움 마당에서 남자아


이들은 스포츠 전시관에 들렀다가 잡기 놀이를 하며 온 마당을 뛰어다녔다. 여자아이들은 희연이와 소정의의 극적 화해로 4학년 여자아이들이 몰려다니며 잡기놀이에 열중했다. 한참을 놀다가 포도가 준비한 매실차를 마시고 터전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 5분을 걸었나 싶었는데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맨 몸으로 비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 다들 모자를 쓰라고 했다. 머리가 젖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리라 생각됐다. 비를 만난 상황이라 교사와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터전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행색이 다소 어설퍼 보이고 비 맞은 상황이지만 다행히 흠뻑 젖는 비는 아니어서 감기들 정도로 젖진 않았다.

3. 1학년 터전에 오다.

1학년들이 터전에 왔다. 설을 보내고 바로 첫날 수아가 오빠와 터전에 온 것이다. 수아는 방과후가 익숙한 듯 여기저기 오빠를 따라다니며 남자아이들 틈바구니 안에서 나름 어울리고 있다. 오후 들어서 다안이와 지웅이 터전으로 왔다. 이날 마당에는 난로를 피웠는데, 오자마자 난로 앞에서 놀았다. 다른 아이들처럼 얼음으로 난로에 올려서 녹이는 놀이를 했다. 1학년들이 방과후가 낯설텐데 수아와 장민이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다. 다안이는 식사시간과 본인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집에서 나름 큰언니 역할을 담당하던 다안이가 방과후에서 막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서 혼란이 다소 있는 듯하다. 목소리 큰 언니들 밑에서 나름 고생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교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근감을 표시한다. 점점 언니들과 어울리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언니들 놀고 있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있다. 유민이는 희연이가 큰 방패막이

가 되고 있다. 자매가 같이 있어서 인지 방과후에 늦게 왔지만 어려워하지 않는다. 아직은 언니에게 많이 기대는 모습이다.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유민이가 언니들에게 사랑 받기를 바란다. 수아는 오빠 옆에서 방과후 생활을 한다. 보통 여자 남자 아이들이 따로 노는데 수아는 오빠들 사이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당당하게 어울려 논다. 남자아이들도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다. 다들 해균이를 좋아하니 별 말이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균이의 그늘에서 점점 벗어나는 눈치이다. 여자아이들이 끌어다 같이 데리고 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언니들 모습을 관찰하는 중이다. 언니들이 재미있게 노는 상황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하민이는 1월 중에는 방과후에 온 적이 없다. 대체로 조용하게 놀거나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다. 장민이랑 대화하며 놀고 있다. 마루에서 청소기를 장난감 삼아 타고 다닌다. 아직 형들이 노는 놀이에 크게 관심은 없다. 그래서 인지 적극적으로 끼여 들려고 하지 않는 편이다. 2월이 되면 좀 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하람이가 동생을 무척 챙기고 있어 터전생활에 별 어려움은 없어 보였다. 장민이는 어린이집에서의 적극성이 다소 사라진 느낌이다. 형들이 잔뜩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바라보는 중이다. 그래도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관여하기도 한다. 형들 놀이를 제일 관찰을 많이 하는 아이이기도 하다. 아직 큰아이들이 1학년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라서 끼여 들지 못하지만 3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유대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웅이는 터전을 며칠 왔는데 오기 전에는 오기 싫어하다가 방과후에서 놀다보면 가기 싫어하는 일이 벌어진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 처음에 오는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다른

아이들이 “지웅이는 1월 까지만 다녀.”라는 말에 약간 주눅이 든 느낌도 있다. 그래도 방과후 있는 동안에는 형들을 따라다니며 뭐 하고 노는 지 열심히 본다. 계속해서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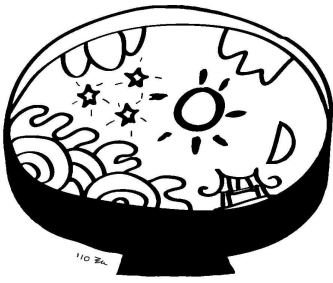
이 지내면서 방과후가 재미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는데 얼마 있지 못해 아 쉽다. 

♥ 해바라기 방과후 2월 계획표

월	화	수	목	금	토
		1 사진 워크샵 동네사진찍기	2 개인활동	3 방과후 규칙 이야기	4
6 강정 만들기	7 천을산 나들이	8 긴나들이	9 자는 모둠	10 자는 모둠	11
13 연만들기	14 천을산 연만들기	15 긴나들이	16 개인 활동	17 들살이준비모임	18
20 천을산 디카사진찍기	21 들살이준비모임	22 겨울 들살이	23 겨울들살이	24 겨울들살이	25
27 해바라기 대회	28 천을산 나들이	29 사진전 감상			

♥ 해바라기 방과후 2012년 활동 계획표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몸 놀이	피구, 야구 등	실내 피구, 야구 시작 봄이 되면 실외에서 진행											
	명상	명상과 만다라											
	자전거		자전거타기시작										
	전통놀이	절기와 계절에 맞는 전통놀이											
손끝 활동	수공예 목공 염색, 색종이	직조짜기, 색종이 소품 바느질			목공	염색	놀이 감	뜨개질, 바느질, 가방 만들기					
의사 소통	책 읽기 동화 동극 시집 만들기 카드 만들기 리코더 오카리나	책 읽기와 읽어주기, 동화 동극, 시집 만들기, 생일카드											
관찰 자연 탐구 활동	디카 사진찍기 천을산 텃밭 등물 키우기	디카 사진찍기, 천을산 나들이, 텃밭 가꾸기, 주변 공원 나들이											
요리 활동	요리활동	강정 만들기	진달 래화전	쫄 개떡	아카 시아 꽃 튀김 , 매실 차	호 떡	과 일 화 채	라 면	송 편	샌드 위치	만 두	유 자 차	달 고 나, 호 떡
관계 활동	모듬활동 공동체놀 이	자 는 모 듬			자 는 모 듬					자 는 모 듬			
특별 활동	들살이 해바라기 마당	들 살 이				단 오	해 바 라 기 마 당	들 살 이		방 과 후 여 는 날		해 바 라 기 마 당	



해바라기 맛있는 2월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점심		볶음밥	동태무국	돈육김치찌개	
		계란후라이	감자볶음	콩나물무침	
간식		맑은장국	시금치무침	구이김	
		크로와상스프	감자수제비	두부김치	
	6	7	8	10	11
		7	세	등	원
점심	소고기무국	재첩국	오므라이스	시금치된장국	오징어무국
	돈가스	두부양념조림	맑은장국	연두부, 간장	연근조림
간식	야채샐러드	깻잎김치	샌드위치, 우유	어묵볶음	계란찜
	떡볶이	조랭이떡국		스파게티	오징어부추전
	13	14	15	16(졸업식)	17
	7 세	등	원		
점심	순두부찌개	토막된장국	짜장밥	소고기미역국	감자탕
	메추리알조림	땅콩조림	계란탕	닭봉조림	지리멸치볶음
간식	도라지초무침	양배추쌈	삼각김밥	숙주나물무침	버섯볶음
	고구마맛탕	버터감자구이		과일요플레	야채모닝빵, 호소
	20	21	22	23	24
			들	살	이
점심	들깨무국	비지찌개	새싹비빔밥	콩나물국	콩나물복어국
	고등어무조림	감자조림	돈육고추장볶음	다시마쌈	삼치구이
간식	배추된장무침	무생채	계란후라이	건새우볶음	브로콜리초고추장
	김치전	잔치국수	멸치주먹밥	프렌치토스트, 과일	오징어튀김
	27	28	29		
점심	소고기버섯전골	배추된장국	콩나물밥		
	파래무침	연근튀김	돈육고추장볶음		
간식	소시지피망볶음	진미채무침	맑은장국		
	새알옹심이	떡만두국	현미가래떡		

씩씩한 터전 소식

전현미(씩씩한 찬종, 찬홍 엄마)

1. 2012년을 겨울 방학과 함께 시작하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2012년을 맞이하여 각 가정의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아이들과 아마들이 모두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터전의 2012년은 겨울 방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월 첫 주를 터전 방학으로 보내었는데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을 하여 낮 시간 동안 터전을 대신하여 돌보아 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방학 중 마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실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쿠키, 까나페, 핫도그 만들기, 지하철 타기, 쿵쿵 랜드, 영화 상영, 놀이터에서 놀기, 경산용암온천으로 목욕하러 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마실 온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며 (물론, 마실 한 가정에서도 좋은 추억이 되었답니다.^.^) 공동육아의 내공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꼬박 보내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주도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거의 다투지 않고 협력하여 저희들끼리 잘 노는 모습에 밥과 간식만 부지런히 제공하면 되었고 아마는 한쪽 구석(?)에서 뜨개질과 독서가 가능했다고 하니 공동육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2. 새를 기다리며

터전 앞마당 산 쪽에 새 모이통을 만들어 달아 놓은 걸 보셨나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긴 우유 통을 잘라 새 모이통을 만



들고 땅콩과 옥수수 알을 까서 새 모이를 담아두었습니다. 아침 선생님께서는 사과를 가져와서 나뭇가지 위에 꽂아 두시기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먹이를 마련해 놓고 새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새가 날아와서 사과를 쪼아 먹고 모이를 먹는 장면이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어 좋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가까이서 새가 모이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3. 민족의 명절, 설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 1월 23일은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명절 중 하나인 설이었습니다. 다들 떡국 맛있게 드시고 나이도 한 살 더 잡수셨지요? 아이들은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양 신나하던데 아마분들도 그러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씩씩한에서는 설을 맞이하여 만두를 빚었습니다. 안식월을 사용하고 계신 나비 선생님 대신 한 달 동안 주방을 맡아 수고해 주시고 계신 미모의 태양 선생님께서 고기를 넣지 않고 당면, 두부, 김치, 부추만 넣은 만두를 씩씩이들과 함께 만드셨다는데 고기를 넣지 않으니 더 담백하고 맛있다는 선생님들의 만두 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리 선생님께서는 속이

모자라 김치로만 속을 만든 만두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맛있었다고 하시며 생협 만두피가 쫄깃하고 맛났다고 하니 각 가정에서도 손쉬운 김치 만두에 도전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아 참, 만두피를 붙일 때는 계란 흰자를 묻히면 잘 붙는다고 하니 만드실 때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설맞이 음식으로 강정을 만들기 위해 두 번이나 튀밥 튀기는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산 성당 근처의 다리 위 튀밥 트럭을 찾았으나 할아버지가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안 나오셔서 아직 강정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쉬움이 큰 아이들이 매호천 다리 아래의 얼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놀다가 발이 물에 빠지는 작은 사고(?)도 있었다고 하네요.

설에는 당연 세배와 세뱃돈이 빠질 수 없겠지요. 터전에서 아이들에게 세배 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세배 시에 남자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는 게 전통 예법이며 여자는 부모에게 세배를 드릴 때는 큰 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터전에서 세배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이번 설에는 유난히 예쁘게 절을 잘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4.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2011년은 터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들이 문화 체험을 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를 아쉬워하던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우리 끼리라도 음악회를 열자.’고 의기투합하여 지난 1월 20일에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보리 선생님과 체리 선생님께서 피리 연주를 머루 선생님께서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이들 앞에 서는 게 일상이신 선생님들께서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려니 다리가 심하게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쿵거리

며 뛰었다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음악회 소식을 묻는 엄마에게 찬종이가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앵콜이 뭔지 알아?” “앵콜이 뭔데?” “그건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 날 선생님들의 공연은 아이들이 앵콜을 연달아 외쳐대는 훌륭한 연주였다고 하네요.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아마들 중에도 숨겨진 음악적 재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데 다음엔 아마들도 같이 참여하는 ‘큰 음악회’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1월의 마지막 날에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그림자 인형극 ‘구름빵’이 공연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 날은 문화 공연에 목마른 아마들도 같이 초대해 주실 거지요?

5. 8세들 드디어 해바라기로 진출하다.

씩씩한의 지웅, 장민, 하민, 유민, 수아, 다안이 드디어 8세가 되어 해바라기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설을 지나고 난 25일부터 해바라기로 가게 된 8세들은 일부 아마들의 우려(?)와는 달리 첫 날부터 해바라기 형님들과의 놀이를 즐기며 데리러온 부모에게 하원하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바라기의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니 재미있고 좋다는 아이들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바라기가 썩썩한 보다 생활의 자율성이 더 보장되고,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새 훌쩍 자란 8세들이 자유가 더 많은 해바라기의 생활을 선망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아마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로 진출한 8세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들이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 6,000원(?)의 행방

지웅이가 나들이 길에 6,000원을 주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6,000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긴긴 시간 동안 있었

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어하던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유도가 살짝 있기는 했지만 주인을 찾아주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돈을 주운 장소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씩씩한으로 찾으러 오라는 전단지까지 만들어 붙였으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경찰서에 돈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주인을 찾을 수 없자 한참 뒤 그 돈은 다시 씩씩한으로 돌아왔고 다시 기나긴 토론 끝에 남을 도와주자는 결론이 내려져 8세들이 주도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주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나긴 토론, 합의한 결론을 위한 행동 실천 등을 통해 아이들은 또 한 뼉 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바라기 터전 소식

김량현(하랑, 하민 엄마)

1. 해바라기 스포츠 센터

겨울이라 아이들이 움츠려들 것 같지만 역시 우리 해바라기 친구들은 몸을 가만히 있지 않네요. 마당에서도 마루에서도 아이들의 움직임은 씩씩합니다.

마루에서는 스포츠 센터가 열렸네요.

강사는 바로 3학년 정해군

농구 골대 앞에 세하, 동현, 환승이 해군이 반원으로 서서 순서대로 해군의 지도 아래 농구 골대에 공을 넣는 연습을 합니다.

동현이가 던진 공이 방향을 벗어나니 해군이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라며 시범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진지한 태도와 눈빛을 보니 스포츠 센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2. 지하철 방송에서 욕이!!

뜬금없이 동현이가 “아줌마 지하철 타면 욕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 들어갑니다.

하랑이도 동의합니다.

뭐라 하는지 해보라하니 “어찌구저찌구 궁시렁구시렁 이 새끼 마쓰”라고 합니다.


(글로 흉내낼 수 없어 제가 알아들은 부분만 적습니다.)

지하철공사 근무 하시는 해군 아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겨울 뿔감 톱질 대왕이 나오시다

토토로샘이 길가에 누워있는 큰 나뭇가지를 터전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겨울교사대회에 참여한 교사들 대신 아마로 간 하랑모 겨울 반나절 무얼 하며 보낼까 생각하다 뿔감을 발견한 것이죠.

톱을 찾아내 폼 잡고 뿔감자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톱 소여의 모험에서 톱이 울타리 페인트 칠하듯 아이들에게 으스스대며 톱자루를 내밀었는데 아이쿠 톱질대왕 납시네요. 찬희, 장범이 그동안 캠핑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리듬감과 부드러움으로 한 톱질하고 세하는 리듬감을 살리라는 말에 무릎을 까딱까딱하며 톱질하고 환승이는 빠른 스피드로 톱질을 합니다.

서로 힘이 떨어질 때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해서 어느새 담벼락 밑에 나무뿔감이 쌓였다는 소식입니다. 

편집후기

신미정 [동현엄마]

우리 곁에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아니, 제 곁에... 나이가 들어가니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가까이에서 겪고 보게 되네요.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게 무척 소중한단 걸 깨닫게 됩니다.

권영현 [희영엄마]

13번째 소식지를 만듭니다. 처음 생각했던 12번이 아니라 14번을 해야 2011년 홍보소위의 소식지 발행이 끝이 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생각했던 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한두 번씩의 기회나 여유가 더 주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김덕춘 [재홍엄마]

드디어 12번째 소식지가 나가네요. 휴~~~ 숨가쁘게 뛰어온 2011이 이제 마무리 되는 기분^^ 해바라기로 오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씩씩한 어린이집을 참 멀리 떠났던 듯하였는데 다행히 소식지 편집을 하며 터전 마당에 가서 노는 간접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할 일이지요^^ 많은 시간 같이 하지 못한 홍보소위 아마들께 미안한 마음 가득. 사랑합니다.♥

하윤주 [시훈승훈엄마]

홍보소위로 있으면서 별 도움이 못 된 듯 해서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희 [지호엄마]

작년 처음 씩씩한에 발들여 가장 살갑게 맞아주신 동현모의 권유로 홍보소위일을 시작했는데...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소감을 쓰게 되었네요...그리고 보니 참~세월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며,

먼저 한해동안 소식지를 관심있게 봐주시고, 어려운 부탁에도 글을 잘쓰시는 분이건, 글쓰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건 상관없이 글을 써주신 아마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소위도 무지하게 일 많고 힘들겠지만 홍보소위는 매월 방모임전 소식지가 나와야 하고, 그때까지 정해진 원고를 청탁하고, 받아야한다는 마음의 짐이 있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거절당할 것을 전제하여 하는 것이라 최악의 사태엔 청탁자가 글을 써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담을 매월 안고, 전화하기 전엔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서 전화를 했습니다~~ㅋㅋ(전직은 어쩔 수 없나봐요~)

시나리오를 아무리 잘 짜도 튕긴것만 일년 열두번중 세 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조합원님 그중 내가 한명이구나~~ 생각하고 계시죠?^^

죄책감 느끼시라 쓴 글은 아니구요..

다름 아니라 조합에서 하는 일이 이런 글 쓰기 뿐 아니라 각 소위의 이사와 직책을 맡게 되는 것 까지 모두~~본인이 아니면 누가 하겠노?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모른척하다가 시키면 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은 있겠지...하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첫 번째 부류가 아니라서 올 한해를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홍보 소위원들이 전화를 드리면 글쓰기의 차례가 왔음을 ...그냥 받아 들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쓰는 재주 없는 저 또한 그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도 복받으세요~~

박순희 [은준엄마]


"마지막 편집후기" 란 말에 맘이 이상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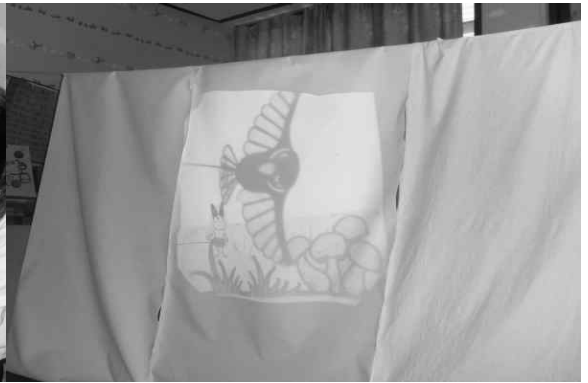
이 알 수없는 마음은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이겠죠?

2011년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들 데려다 놓고 챙겨주느라 더 고생했을 홍보이사님과 부른 배로 편집장노릇에 힘들었을 희영엄마, 바쁜 학교일속에서 편집하느라 고생하신 재홍,재욱엄마, 그리고 참관만 하시라고 모셔 놓고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소위활동하신 시승훈엄마, 민소,영현엄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별도움도 못되었지만 홍보소위라서 즐겁고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1년동안 큰 사고없이 꼬박꼬박 나온 소식지에 감사하며 2012년에도 그러하길 빌어봅니다.

(너무나 느긋한 성향의 남편이 홍보이사가 된 관계로 무지 불안합니다.^^^:)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제85호

- 발행일 2012년 2월 1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변영숙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오현석, 신미정, 권영현, 하윤주, 김덕춘,
장준현, 정은주, 박순희, 이옥희, 이승희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